발간사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문학의 미래

2015년, 페미니즘이 리부트되었다는 손희정의 선언을 떠올리면 어느새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셈이다. 그 사이 한국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이후 문단과 학계에도 성찰과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물론 백래시의 흐름 역시 일어났고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와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과제를 남기고 있다.

개강을 앞두고 대부분의 여성문학 연구자들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여성문학 연구자이자 교수자로서 당장의 강의에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담아내고 학생들과 소통할 것인지 나 또한 고민 중이다. 문단에도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0년대 중후반만큼의 긴장감이 강의실에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그때만큼 폭발적이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다.

물론 폭발적인 에너지가 사그라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의 진전이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은 이제 분화되어 각 분야마다 더 깊은 사유와 실천이 요구되는 방향으로 전회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가 더 중요해진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여성문학 연구자로서 여성문학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의 문제도 ‘이후’에 대한 사유와 실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문학연구』 62호의 특집은 지난 5월 11일에 열린 한국여성문학학회·한국여성사학회·한국여성철학학회·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24 문사철 연합 학술대회의 기획 주제였던 ‘1990년대 페미니즘적 전회’의 문제의식을 계승해 새롭게 구성했다. 페미니즘 리부트가 촉발한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는 1990년대 한국 사회의 변화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1990년대에 부상한 페미니즘은 지식과 학술 담론 및 운동의 장은 물론 일상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견인했다. 아울러 페미니즘 리부트 이

후의 한국 여성문학은 1990년대 여성문학을 계승하고 있다. 1990년대 페미니즘적 전회를 기점으로 이후의 한국 여성문학과 여성에 대한 지식과 담론 생산의 장을 다시 돌아보며 페미니스트적 실천의 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62호 특집을 마련하였다.

특집 원고는 배상미의 「망각된 식민지 시기 기억의 복원: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배하은의 「운동권 여대생 소설의 1990년대적 주체 구성의 기획」, 이소영의 「1990년대 페미니즘 정치와 여성의 고통받는 몸」 등 세 편이다.

배상미의 논문은 1990년대 박완서의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 나타난 창씨개명, 일본어 책 읽기, '위안부' 강제동원 등 '기억'에 근거한 식민지 시기의 재현이 주류 담론과는 달리 식민주의에 대한 다층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민주화 이후에도 '복원'되지 못한 식민지 시기의 유산들을 '기억'을 매개로 재현한 박완서의 소설을 식민주의에 대한 다층적이고 비판적인 성찰을 촉구하는 중요한 텍스트로 읽어낸다.

배하은의 논문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사이에 등장한 운동권 여대생 소설을 중심으로 1990년대적 주체 구성의 기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권인숙의 부천서 성고문 폭로 사건은 운동권 여대생 주체 구성의 상징체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는데, 이를 징후적으로 보여준 소설이 김인숙의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과 공지영의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이행하는 주체의 헤게모니가 '숭고의 도덕'에서 '낭만적 윤리'로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소영의 논문은 1990년대 페미니즘적 전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1990년대 초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던 당시에 '성폭력' 개념 논쟁에 주목한다. 타자의 고통에 페미니스트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며, 번역했는지를 『베틀』과 『나눔터』,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살펴본 이 논문 역시 일독을 권한다.

이번 호에 실린 일반 논문은 모두 6편이다. 고전문학에서 현대문학, 여성 잡지 및 어린이, 청소년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실렸으니 이 더위를 물리칠 만한 풍성한 읽을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정인혁의 「〈취연전〉의

서사구조와 인물 특성의 의미 연구」, 서은혜의 「임옥인 소설의 서술 심급과 이중적 서사 전략-〈후처기〉, 〈전처기〉, 〈현실도피〉에 대한 페미니즘 서사학적 접근」, 변하연의 「김말봉 소설 속 '성노동자'들」, 홍순애·김연숙의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의 가족법 담론과 젠더적 법의식」, 윤조원의 「기후위기 '다르게 느끼기': 어린이, 청소년의 대안 정동에 관한 시론」, 정미선의 「동시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퀴어 즐거움의 서사적 의미망과 퀴어 느낌의 정치」 등이다. 고전에서 동시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여성문학에서 다룰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를 이 논문들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란다.

추천 석사 논문으로는 서욱희의 「김명순 문학의 기독교 언어 전유」를 소개한다. 김명순 문학에 나타난 성서 인용과 변주 사례를 통해 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분열상을 밝힌 이 논문은 김명순 문학을 기독교 언어를 거쳐 자기 언어를 찾는 작가 되기의 과정으로 읽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김명순 문학을 여성 자각의 기독교 언어 전유를 깊고도 다양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읽고자 한 시각도 새롭지만, 그것을 의심과 미련이라는 양가적 태도라든가 내용과 형식의 변주에서 찾으려고 한 점도 흥미로웠다. 여성 작가의 기독교 언어에 대한 반응과 재활용 연구는 다른 시대, 다른 작가로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가 근대 여성 교육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 왔고 여성 작가들에게 오랫동안 깊은 영향을 미쳐 왔음은 선행 연구에서도 주목해 왔지만, 여성 작가들의 글에 남아 있는 기독교의 흔적과 영향을 신여성 담론, 사회주의, 모더니즘 등과 맺은 복잡한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진전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 작가들의 기독교 읽기를 되짚는 작업은 사랑과 구원과 이상적 공동체의 약속을 핵심으로 하는 말들과 이 말들에 위화감을 느끼고 바꾸고자 하는 욕망 사이의 긴장을 따라가는 읽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 이 논문의 관점을 주목할 만하다.

그 밖에 서평으로는 이경하의 『조선여성문학사: 이론과 실제』(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에 대한 김수영의 글 「여성문학사 쓰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었다. 이 글은 『조선여성문학사』를 전근대 시기 한국 여성의 어문생활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21세기 최초의 한국 고전여성문학사로 평가하면서 책의 구성과 특징, 의의 등을 살피고 있다. 특히 제1부와 제2부에서 세계

여러 나라 여성문학사의 서술대상, 서술체계, 시대구분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 점을 이 책의 미덕으로 주목한다. 이 책의 저자는 여성문학사 서술이 자국 문학사 서술을 보완하는 데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문학사를 다시 쓰는 일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여성문학사 서술의 기본 방향을 '어문생활사'(語文生活史)에서 찾고 있다고 본다. 이 책의 의의를 면밀히 살피면서도 김수영은 이 책이 '문학작품이 잘 보이지 않는 여성문학사'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여성문학사 서술에 대해 고민하는 연구자라면 이경하의 책과 김수영의 서평을 공들여 읽을 필요가 있다.

처음 경험하는 폭염으로 인해 '기후 위기'를 실감하며 방학 같지 않은 방학을 보냈을 것이다. 개강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성문학연구』 62호에 특집 논문 3편, 일반 논문 6편, 추천 석사 논문과 서평까지 풍성한 읽을거리를 마련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 『여성문학연구』의 발자취가 곧 한국 여성문학의 역사이자 미래가 될 것이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문학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여성문학 연구자들을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다.

편집위원장 이경수